울산광역시 사암聯·종단聯 신년 간담회 개최

사암聯·종단聯, 울산불교 지역발전 기원
1월 1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담회 열어
숙원 울산 차문화 다도성지 건립 추진,
울산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이전 등
울산불교 연중주요행사·사업 보고 논의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및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가 불기2567년 계묘년을 맞아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및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가 불기2567년 계묘년을 맞아 울산불교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울산불교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1월 17일 울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축원, 신년하례, 내·외빈 소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인사말, 신도회장 인사말, 수석부회장 인사말, 울산광역시장 인사말, 2023년 울산불교연중행사 주요사업보고, 사홍서원, 폐회,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해 울산 차문화 다도성지 건립 추진과 울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울산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의 이전 봉안 등 2023년 울산불교계의 연중행사와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여선원 효암 스님은 2월 5일 정월대보름 합동방생대법회(태화강 국가정원일원), 5월 12~14일(3일간) 부처님오신날 봉축 태화강 연등축제(태화강 둔치 일원), 9월 울산종하체육관에서 자비도량 참법 5일기도법회, 10월 제12회 전통 음식문화한마당, 10월 제27회 울산불교합창축제, 11월 제14회 울산 차문화한마당(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 12월 제22회 무루음악회(롯데호텔 울산 대연회장) 등 울산불교계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했다.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5년 정도 됐고 불자가 30만이 넘지만 이렇다 할 거점 사찰이 없어 불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을 다도성지와 태화사지, 태화사지 십이지신 사리탑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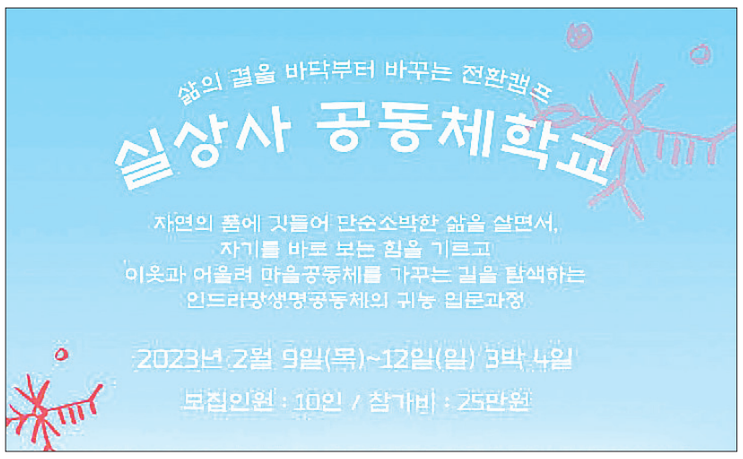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토끼의 지혜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울산불교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며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 불교계의 숙원사업은 태화사지의 복원과 차문화성지의 조성으로 알고 있다. 울산이 공업도시에서 문화창달도시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며 "태화사에 대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차 문화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불교종단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울산조계종사암상임자문위원장 정토사 덕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월봉사 보화 스님, 종단연합회상임부회장 정관암 대활 스님, 부회장 벽선암 혜진 스님, 부회장 신흥사 종현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도솔암 덕송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지역스님, 이병호신도회장, 이영수수석부회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최진희 교육대학총동문회장, 허유리 울산불교여성회장등 각 신행단체임원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실상사 마을 공동체학교' 열린다

귀농귀촌 대중교육프로그램
2월 9일부터 12일 남원 실상사서
생태적 삶·귀농 귀촌 등 교육
매월 1회 셋째주 목~일에 운영



1998년 창립하여 20년간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대안교육, 생활협동조합 등 생명평화운동을 이어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가 9년 만에 귀농귀촌 대중교육프로그램인 실상사 마을 공동체 학교를 개설한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실상사 공동체학교는 귀농교육의 산실이었던 실상사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마을공동체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태적 삶, 귀농귀촌, 마을공동체운동 등을 배우고 익히는 3박 4일간의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농사, 건강한 먹거리, 자기를 돌보는 명상, 마을공동체탐방, 목공체험, 귀농귀촌선배와의 대화, 도법 스님과 차담, 경청의 대화법, 공동체 워크숍 등이다.

실상사공동체학교는 매월 1회 셋째주 목~일요일 운영될 계획이며, 입문교육 이수자들을 위해 추후 농사, 마을공동체, 먹거리(발효), 명상, 수공예 등 전문분야별 심화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드라망 관계자는 "자연에 깃들어 단순소박한 삶을 살면서, 자기를 바로 보는 힘을 기르고 이웃과 어울려 마을공동체를 가꾸는 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수강신청은 인드라망 홈페이지(http://www.indramang.org) 인드라망 사무처 전화(02-576-1886)이다. 모집기간은 2월 3일(금)까지이며 참가비(3박 4일 숙박, 프로그램 비용 포함)는 25만원, 모집 정원은 10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풍물단 파드마 창립



1월 14일 광덕사서 창단식 개최
풍물 통해 부처님말씀 널리 알려
법회·교육·공연 등 활동계획

"풍물이라는 인연으로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겠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 산하 풍물단 '파드마'가 창단했다. 풍물단 파드마는 1월 14일 광주 주월동 광덕사(주지 상진)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단한 파드마는 "풍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문화포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도성 스님, 소원정사 도계 스님, 상진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을 비롯해 파드마 회원 15명과 신행단체 100여 명이 참여해 창립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도성 스님은 "사찰에서는 매일 사물을 울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 풍물의 다양한 악기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파드마 회원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새로 지도법사를 맡게 된 상진 스님은 "파드마는 연꽃을 뜻하며, 붉은 연꽃을 상징하는 불교용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며, "연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첫 풍물단 단장을 맡은 손화자 단장은 회원소개에 앞서 "앞으로 불교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공연,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진 공연에서는 화엄사빛고을포교원 합창단, 생황연주(신선민), 남도장구(한사랑예술단), 진도북춤(정정순) 등이 공연으로 파드마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창립한 풍물단 파드마는 지도법사 상진 스님을 비롯해 단장 손화자, 기획 김동렬, 총무 백권, 단원 채미선, 김주현, 우문순, 우남일, 라선욱, 유송일, 박상호, 박정숙, 김재식, 유성대 회원 등이 참여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기법회와 교육(교육지원, 연합교육, 대중강습, 전문강습), 공연, 타 불교단체와 연대활동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32기 졸업식 개최

1월 15일 졸업생 24명 배출
박재현, 조계종 포교원장상



익산지역 유일의 신도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32기 졸업식를 봉행했다.

1월 15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송동기 부학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송주용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 최형수 익산마한거사림회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다. 고순자 불자 등 24명의 불자들은 조계종 신도기본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의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재현 불자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학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덕림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실참을 통해 주인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봉사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가진 졸업생들은 후학양성을 위해 이리불교대학 후학양성기금을 학장 덕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리 불교대학은 지난 1991년 설립된 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불자들을 배출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어울림한마당'



고창군사회복지시설(시설장 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 및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명절분위기를 나눌 수 있는 '계묘년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했다.

1월 18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입춘방 나눔, 실버차 나눔봉사단의 차나눔, 윷놀이 및 고리던지기 등 참여한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복지관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명절인사와 깜짝 공연을 선보여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떡국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생필품 및 식재료 등이 담긴 복 꾸러미도 전달했다.

이날 설 명절행사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은 "신나는 시간도 보내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은 "새해 첫 명절을 기념해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고 어울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복지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중 독거 및 고위험 어르신 150명에게 떡국 및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관음사, 이웃위한 자비의 쌀 나눔

백미 350kg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익산 금강동 관음사(주지 정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기탁했다.

익산 금강동 관음사 주지 정수 스님과 신도들은 1월 12일 백미 350kg을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비의 쌀은 지역 저소득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정수 스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백미를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사는 3년째 백미를 기탁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성이 이어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주지후보 추천 산중총회

2월 13일 오후 1시 선운사 성보박물관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주지후보 추천을 위한 산중총회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2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일묵)는 오는 2월 13일 선운사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산중총회의 구성원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 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당해 교구에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 등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3일(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까지이며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전진대회 개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강윤구)은 1월 14일 영암 도갑사 대웅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포교 氣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 광주전남포교사단 지도법사 무인 스님(송광사 포교국장), 송강 스님(백양사 포교국장), 덕명 스님(화엄사 포교국장), 설중 스님(대흥사 포교국장) 스님, 수관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단 김영석 중앙단장, 강윤구 지역단장, 광주전남지역 포교사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과 포상, 임명장 수여, 법문, 마애부처님 참배 등을 진행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불교조직이 포교사단"이라며 "한국불교 지킴이가 포교사이다. 이제 대한민국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전국적으로 명상센터 건립과 함께 명상포교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새해 포교의 중심사업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수관 스님은 환영의 말을 통해 "계묘년 새해에는 큰 원력을 세우면 상근기로 갈 수 있으며, 불국토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강윤구 단장은 인사말에서 도갑사의 창건주인 도선국사의 탄생 유래와 영암에서 불교왜곡을 비판하며, "우리는 불교 포교를 위해 포교사가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잘 살면 결국 포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날마다 절에 가고, 날마다 보시를 하자"고 다짐했다.

2022년 포교활동에 기여한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포교사단 총재상에 정환근 포교사, 포교사단장상에 김홍길, 장치호 포교사가 각각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